미국 학교도서관 기준 관련 문서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구조와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Structure and Contents Analysis of America New School Library Standards Sets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이 병 기(Byeong-Ki Lee)*

〈 목 차 〉

Ⅰ. 서 론
Ⅱ.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의 배경
1.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의 역사와 성격
2.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 관련 문서의 편제
Ⅲ.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 관련 문서의 구조 분석
1.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구조
2.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의 구조
Ⅳ.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 관련 문서의 내용 분석
1. 기능
2. 성향
3. 책임감
4. 자기평가 전략
5. 실천 사례
Ⅴ. 결론 및 제언

초 록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은 미국의 각 주(州) 정부의 학교도서관 정책은 물론 전 세계 학교도서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은 미국교육학회(NEA) 주도로 1920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교육 및 기술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약 10여 차례 개정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의 기준으로는 2009년에 AASL에서 발행한 「학습자 힘 기르기」가 있다. 「학습자 힘 기르기」는 2007년과 2009년에 각각 발행한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학교도서관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7년에 제정한 학교도서관 기준 관련 문서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과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여 학교도서관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정책의 바로미터로 삼고자 한다.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비전을 제시하고,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은 학교도서관을 통해서 기준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키워드: 학교도서관 기준, 학습 능력, 도서관활용수업, 도서관협력수업

ABSTRACT

The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in America affected school library policy in US as well as worlds. The America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established by NEA for the first time in 1920. After the first standard established, America standards revised about 10 times to accommodate educational and technological changes. The Americas new school library standards 'empowering learners: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 established by AASL in 2009. The guidelines are relevant to the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in action'. The guidelines expected to affect US as well as school library policy of worlds. Thu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and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in action'. The standard for 21st-century learner offer vision for teaching and learning to both guide and beckon our profession as education leaders. They will both shape the library program and serve as a tool for library media specialists to use to shape the learning of students in the school. The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in action offer how are AASL's new learning standards, the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incorporated into the school library.

Keywords: School Library Standard, Learning Ability, Library-assisted Instruction, Cooperative Instruction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교수(lisdoc@kongju.ac.kr)
• 접수일: 2009년 8월 11일 • 최초심사일: 2009년 8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9년 9월 21일

I. 서 론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standards)은 미국의 각 주(州) 정부의 학교도서관 정책은 물론 전 세계 학교도서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학교도서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 기술적 변화 및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발 빠르게 수용함으로써 학교도서관 경영의 이념, 철학과 실천 원리에 관한 원형(原型)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은 미국도서관협회(ALA) 산하 단체인 미국사서교사협의회(AASL: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에서 발행하는 전문 단체 수준의 기준이지만 각 주(州) 정부의 학교도서관 관계 법령이나 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연방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은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되어 전 세계의 학교도서관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각국의 법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됨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69년판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Standards for School Media Programs)의 영향을 받아서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와 미디어 프로그램, 미디어 스페셜리스트의 개념을 등장시켰고, 1988년과 1998년에 걸쳐 부제만 다르게 출판된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information power)에 의해서 학교도서관을 통한 정보활용교육(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도서관협력수업의 개념을 정착시켰다.[1)]

1920년에 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에 정보 기술 및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약 10여년을 주기로 개정하고 있으며, 1998년판 기준 이후로 2009년에 「학습자 힘 기르기: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 지침(Empowering Learners :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2)]이라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학교도서관의 공간, 직원, 예산, 정책 등을 다룸으로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교도서관 기준'이라 할 수 있으나 이 보다 앞서서 2007년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3)]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했기 때문에 2개의 문서를 합쳐 하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은 7쪽에 불과한 소책자이지만 학교도서관이 추구하는 교육적 이념과 미래지향적인 학교도서관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만간에

1) AASL & AECT, *Information Power: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ALA, AECT : Chicargo, 1988), pp.1-13. ; AASL & AECT, *Information Power: Building Partnerships for Learning* (ALA, Chicargo, 1998), pp.8-9.

2) AASL, *Empowering Learners: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ALA : Chicago, 2009).

3) AASL,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AASL : Chicago, 2007). 〈http://www.ala.org/ala/mgrps/divs/aasl/guidelinesandstandards/learningstandards/AASL_LearningStandards.pdf〉 [cited 2009. 7. 21].

다른 국가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년판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의 바탕을 이루는 핵심 문서인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을 분석함으로써 학교도서관계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 기준 마련이나 정책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2009년판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의 핵심 관련 문서인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은 4개의 기준 아래 요소(strands), 지표 등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또한, 이 기준은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in Action)」, 「학습자 힘 기르기 :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 지침(Empowering Learners :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Learning4Life(L4L))」과 상호 연계되어 있다.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문서와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과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을 분석함으로써 학교도서관계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정책의 벤치마킹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과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의 구조를 분석하고, 각 구성요소별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실질적인 미국의 최신 학교도서관 기준인 「학습자 힘 기르기: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 지침」에 대한 고찰은 차후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Ⅱ.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의 배경

1.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의 역사와 성격

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기술 및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약 5-10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학교도서관 기준이 1920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1920년판 기준은 도서관계가 아니라 미국교육학회(NEA)의 주도로 제정되었으며, 개별화 학습 및 학생들의 개인차, 죤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에 영향을 받았다.[4] 1925년 기준에서는 교육자료로서 시각자료가 널리 보급됨으로써 시각자료를 학교도서관 장서로 수용하기 시작하였고, 1945년 기준에서는 시청각자료의 수용과 동시에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협력에 의한 수업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4) Betty J. Morris, *Administering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4th ed.(Westport, Connecticut : Libraries Unlimited, 2004), pp.6-7.

1969년 기준에서는 모든 형식의 미디어를 학교도서관 장서로 수용하고, 학교도서관을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SLMC)로, 학교도서관 서비스를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SLMP)으로, 사서교사를 미디어 스페셜리스트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1〉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의 역사

년도	기준명	저작자	발행사	주요 내용
1920	Standard Library Organization and Equipment for Secondary Schools of Different Sizes	NEA department of secondary teachers. Committee on library organization and equipment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 도서 및 시설 기준 • 직원(사서+교사) 자격 • 도서 및 도서관 이용 수업
1925	Elementary school library standards.	Joint committee of the NEA and ALA	ALA	• 초등 학교도서관 시설기준·교과서 중심의 교육 지양 • 장서에 시각자료 포함
1945	School Libraries for Today and Tomorrow: Functions and Standards	Committees on post-war planning of the ALA, AASL	ALA	• 학교도서관의 소장 자료 범위에 시청각자료 포함 • 사서교사 자격기준 마련 • 사서교사의 협력적 노력
1960	Standard for School Library Program	AASL	ALA	• 학교도서관 도서자료의 양적 기준 제시 • 학교도서관을 학습자료센터로 인식
1969	Standards for School Media Programs	AASL, Department of audiovisual instruction of NEA	ALA	•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 개념 정립 • 매체 통합 • 미디어 스페셜리스트로 전환
1975	Media programs : district and school	AASL, AECT	ALA	• 교육정보 기술의 수용 • 미디어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연계 강조
1988	Information Power : Guidelines for Library Media Programs	AASL, AECT	ALA, AECT	• 사서교사의 3대 기능 제시 • 협력적 교수활동 강조 • 사서교사의 리더십 강조
1998	Information Literacy Standards for Student Learning : Standard and Indicators	AASL, AECT	ALA	• 정보활용능력(IL) 기준 제시 • 정보활용능력의 기준, 지표, 계열 제시
1998	Information Power: Building Partnerships for Learning	AASL, AECT	ALA	• 정보활용능력(IL) 기준 제시 • 사서교사의 4대 기능 제시 • 사서교사의 리더십, 협력 체계
2007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AASL	AASL	• 학교도서관의 9가지 핵심 신념 • 21세기 학습능력 기준, 요소, 지표 제시
2009	Empowering Learners: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	AASL	AASL	•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의 구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환경 구축, 리더십 등 •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수-학습

1969년 기준에 의하면 SLMP는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와 전문 직원에 의해서 교사 및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여타의 서비스 총체"라 규정하고 있다.[5] 1988년에 개발한 「Information Power : Guidelines for Library Media Programs」은 학교도서관의 기준을 양적 측면에서 질적 측면으로

5) AASL, Department of audiovisual instruction of NEA, *Standards for School Media Programs*(Chicago : ALA, 1969), p.xv.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사서교사를 교사, 정보전문가, 수업 컨설턴트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서교사의 리더십에 의한 협력교수체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1998년에 발표한 「학생 학습을 위한 정보활용능력 기준(Information Literacy Standards for Student Learning)」은 단편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던 정보활용교육을 공식적으로 학교도서관계에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독자적으로 출판된 이 기준을 연방수준의 학교도서관 지침서인 「Information Power: Building Partnerships for Learning」에 포함시켜 재차 공식화하였다.

그 후 2007년에는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하여 학교도서관의 관리나 운영의 측면보다는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 이념의 구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학교도서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준명이나 전문(全文)에도 거의 학교도서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독서와 정보활용을 통한 교수-학습에 관한 지표만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Empowering Learners」에 담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은 사회적, 교육적 요구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갱신함으로써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초창기의 학교도서관 기준은 대체로 학교도서관의 시설, 자료, 인적자원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양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점차 교수-학습 과정에 학교도서관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2007년에 발표한 기준은 그 정점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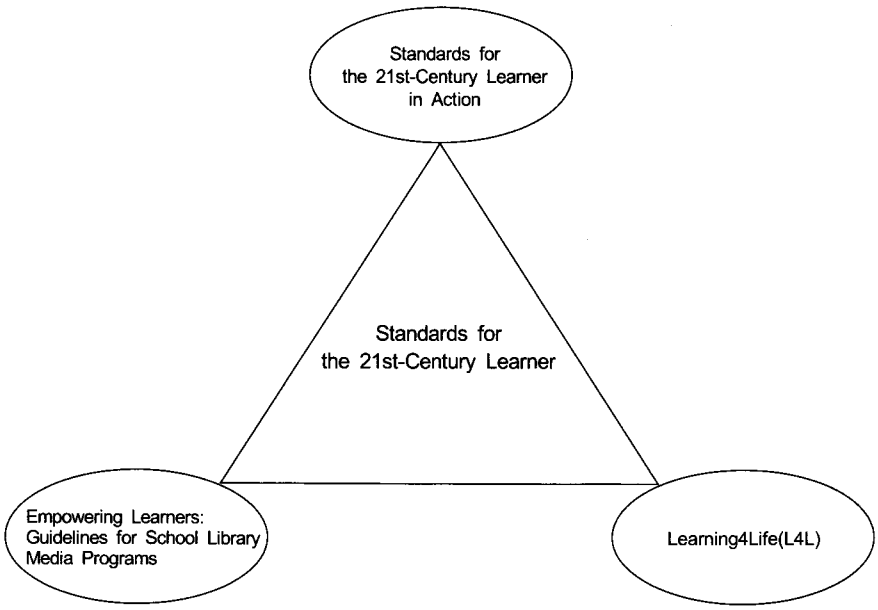
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은 ALA, AASL이 주도하고 있으나 독자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미국 교육학회(NEA), 미국 교육공학회(AECT) 등과 공동으로 준비하고, 발표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문제를 도서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계의 공통 화두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의 저작자나 발행사 모두 전문 직능 단체이지만 여기서 만든 기준이 미국 각 주(州) 정부의 학교도서관 관계 법령이나 정책 지침서에 원용됨으로써 사실상 연방 수준의 벤치마킹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6]

2.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 관련 문서의 편제

2009년에 발행된 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 「학습자 힘 기르기 :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 지침(Empowering Learners :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은 형태상으로는 단행본 형식으로 출판되었으나 다른 기준 및 문서와 상호 관련되어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 Colorado Department of Education, *Standards for Information Literacy and School Library Programs*, 1999. 〈http://www.cde.state.co.us/litstandards/index.htm〉 [cited 2009. 6. 30].
Kentucky Department of Education. *Beyond Proficiency: Achieving a Distinguished Library Media Program*, 2001. 〈http://www.education.ky.gov/NR/rdonlyres/953D6B19-225D-4B43-95C0-951B17A43445/0/beyondproficiency.pdf〉 [cited 2009. 6. 30].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 기준의 실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in Action)」이 있고,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과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을 구현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를 밝힌 「학습자 힘 기르기: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 지침(Empowering Learners: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이 있다. 아울러서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 「학습자 힘 기르기」등 3개의 핵심 기준을 효과적으로 학교 현장에 정착킬 수 있도록 연방 정부는 물론, 주 정부, 교육청, 전문 단체, 단위 학교 등이 어떻게 지원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가를 밝힌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Learning4Life(L4L))」이 있다.



〈그림 1〉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 관련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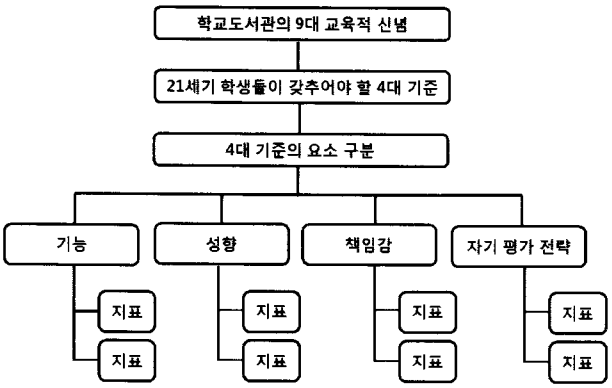
「학습자 힘 기르기」는 21세기 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비전, 학습을 위한 교수, 학습 환경 구축,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공간, 직원, 예산, 장서 관리 등을 다루고 있으며, 실질적인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과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먼저 분석하고, 차후의 연구에서 「학습자 힘 기르기」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은 미국의 새로운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문서로서 20여 쪽의 작은 문서로 편성되어 있고, 학교도서관 교육 주체간의 의사소통 방법, AASL과 주 정부의 책임, 실천 전략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7]

Ⅲ.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 관련 문서의 구조 분석

1.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구조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의 해설이나 부연설명 없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신념, 4대 기준, 4대 기준별 요소 구분(기능, 성향, 책임감, 자기평가 전략), 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도서관이 추구하는 교육적 신념은 학교도서관을 통한 학습의 2가지 핵심적 접근 즉, 독서와 탐구를 강조하고 있으며, 구성주의 학습 이론과 21세기 학습을 위한 정보활용능력(IL)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8]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에 명시된 학교도서관의 9대 교육적 신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구조

① 독서는 세상을 위한 창이다.
② 탐구는 학습을 위한 기본 틀이다.
③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④ 정보기술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미래의 직업적 요구에 부응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⑤ 정보자료에 대한 공평한 접근은 교육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⑥ 정보활용능력의 개념은 정보자료와 정보기술의 변화로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⑦ 정보가 지속적으로 증대함으로써 각 개개인은 자신의 학습에 적용할 사고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

---

7) AASL, *Learning4Life: National Plan for Implementation of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and Empowering Learners: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 2009. 〈http://www.ala.org/ala/mgrps/divs/aasl/guidelinesandstandards/learning4life/document/download.cfm〉 [cited 2009. 7. 15].

8) AASL,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in Action*(Chicago : AASL, 2009), p.6.

⑧ 학습은 사회적 맥락(상황)속에서 이루어진다.

⑨ 학교도서관은 학습 능력 개발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학교도서관의 9대 교육적 신념을 제시한 다음에는 21세기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 능력이라는 의미로 4대 기준(standards)을 제시하고 있다. 이 4대 기준은 비판적 사고와 탐구 능력, 지식의 창출능력, 정보윤리, 개인의 성장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 1: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하며, 지식을 습득한다.

기준 2: 결론 도출 및 의사결정, 새로운 상황에서의 지식 적용 및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

기준 3: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식을 공유하고, 윤리적 생산적으로 사회에 참여한다.

기준 4: 개인적, 심미적 성장을 추구한다.

4대 기준은 기능(skills), 성향(disposition), 책임감(responsibilities), 자기 평가 전략(self-assesment strategies) 등 4개의 요소로 구분하고, 각각의 요소 아래에 세부적인 지표를 3-9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지표는 일종의 학습 목표로서 학생들이 지표를 달성하면 요소(기능, 성향, 책임감, 자기평가 전략)에 해당하는 능력이 생기고, 이 요소를 모두 갖추면 21세기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4대 기준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음을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준, 요소, 지표의 전체적인 구조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기준, 요소, 지표간의 관계

기준 1 :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하며, 지식을 습득한다.	
1.1	기능
1.1.1	각 교과 교육과정에 있어서 지식의 습득은 탐구과정과 동일하며,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 세계와 연결 지을 수 있다.
〈중략〉	
1.1.9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
1.2	성향
1.2.1	단편적인 사실의 수집에 그치지 않고 연구 문제와 해결 방안을 탐구함으로써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다.
〈중략〉	
1.2.7	광범위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탐구함으로써 끈기를 잃지 않는다.
1.3	책임감
1.3.1	정보 창조자 및 생산자의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
〈중략〉	
1.3.5	정보기술을 책임감 있게 활용한다.
1.4	자기 평가 전략
1.4.1	효과와 과정의 관점에서 정보탐구 자체에 대해 점검한다.
〈중략〉	

1.4.4	필요한 시점에서 도움을 요청한다.

기준 [2] : 결론 도출 및 의사결정, 새로운 상황에서의 지식 적용 및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

2.1	기능
2.1.1	새로운 이해, 결론 도출,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위해 비판적 사고 기능(분석, 종합, 평가, 조직)을 지식과 정보에 적용하여 탐구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중략〉
2.1.6	새롭게 이해한 내용을 표현한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 작문 과정, 매체 및 시각 리터러시,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2.2	성향
2.2.1	각 정보원에 고유한 정보 전략과 추가적인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정보자료의 이용에 있어서 융통성을 갖는다.
	〈중략〉
2.2.4	학습 결과물을 완성함으로써 개인적인 생산성을 보여준다.
2.3	책임감
2.3.1	새롭게 이해한 내용을 실제 세계와 연결 짓는다.
2.3.2	결론 도출에 있어서 다양하고, 글로벌한 관점을 고려한다.
2.3.3	윤리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위해 유용하고, 합리적인 정보를 활용한다.
2.4	자기 평가 전략
2.4.1	정보에 대해 어떤 자세(수용, 거부, 수정 등)를 취할 것인가를 판단한다.
	〈중략〉
2.4.4	향후의 탐구 방향을 설정한다.

기준 [3] :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식을 공유하고, 윤리적 생산적으로 사회에 참여한다.

3.1	기능
3.1.1	새롭게 이해한 부분을 공유하고, 학습 자체에 대해 반성해 봄으로써 탐구과정을 완결 짓는다.
	〈중략〉
3.1.6	정보와 정보기술을 윤리적이며, 책임감 있게 이용한다.
3.2	성향
3.2.1	공식적, 비 공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발표함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신감을 확보한다.
3.2.2	학습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토론 그룹에서 질문과 아이디어 제시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3.2.3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작업함에 있어서 팀워크를 발휘한다.
3.3	책임
3.3.1	정보탐색, 다른 사람과의 상호협력, 공동체 참여시에 다양한 관점을 지향하고, 존중한다.
	〈중략〉
3.3.7	지적 자유의 원칙을 존중한다.
3.4	자기 평가 전략
3.4.1	전략 수정이나 미래의 효과적인 방법 모색을 위해서 학습 과정을 평가한다.
3.4.2	학습 결과물의 질적 수준과 효과를 평가한다.
3.4.3	집단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 리더십, 다양한 관점의 존중 태도 등에 관해 평가한다.

기준 [4] : 개인적, 심미적 성장을 추구한다.

4.1	기능
4.1.1	개인적 성장과 즐거움을 위해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다.
	〈중략〉
4.1.8	자신의 학습 결과물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창의적이고, 심미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4.2	성향
4.2.1	다양한 정보자료를 통해서 개인적 흥미를 추구함으로써 지적 호기심을 보인다.

	〈중략〉
4.2.4	즐기기 위한 독서는 물론 다양한 문학 장르의 표현물에 관심을 갖는 문학 감상 태도를 견지한다.
4.3	책임감
4.3.1	면대면 혹은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아이디어의 사회적 교환과정에 참여한다.
	〈중략〉
4.3.4	전자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추구한다.
4.4	자기 평가 전략
4.4.1	자신의 관심 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
	〈중략〉
4.4.6	자신의 요구와 관심사에 적합한 정보자료를 선택하는 능력 자체를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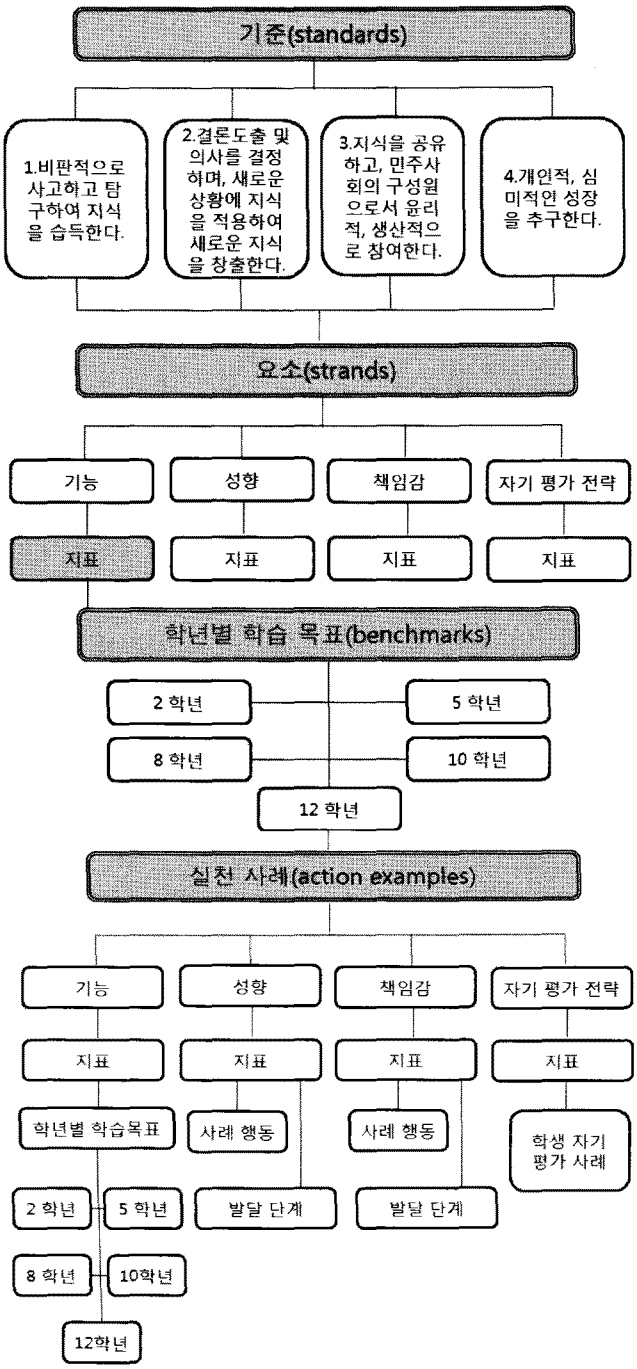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1세기 학습자에게 필요한 핵심 능력으로서 제시한 4가지 기준은 정보 활용, 문제해결, 의사결정, 비판적 사고능력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능력은 결국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하며, 지식을 습득하고, 결론 도출 및 새로운 상황에 지식을 적용하고 창출하여 공유하고, 윤리적 생산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개인적, 심미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학습자에게 필요한 핵심 능력은 특정 기능만을 습득했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표에 해당하는 성향, 책임감, 자기평가 전략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함을 구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의 구조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은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한 문서이며, 해설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은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다만, 기준, 요소, 지표 외에 학년별 학습 목표와 실천 사례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학년별 학습 목표(benchmark)는 초·중등학교(K-12) 중에서 2, 5, 8, 10, 12학년으로 구분하여 각 학년에서 성취해야 할 4대 기준의 학습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실천 사례(action example)는 실제 수업 상황을 모델로 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학년별 학습 목표와 실천 사례는 21세기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 능력과 역량 개발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학년별로 구체화하여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학년별 학습목표를 통해서 사서교사가 특정 교과 단원의 수업과 통합적으로 지도할 때 교과교사와 어떻게 협력하고, 수업을 전개할 것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실천 사례는 기능, 성향, 책임감, 자기평가 전략 등 4개의 요소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능은 학년별 학습목표를 중심으로 하고, 성향은 사례 행동과 발전 단계를, 자기평가 전략은 자기 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의 구조

Ⅳ.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 관련 문서의 내용 분석

미국의 새로운 학교도서관 기준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은 21세기 학습자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능력을 4대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 기준을 요소(기능, 성향, 책임감, 자기평가 전략) 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4대 기준을 요소별로 구분한 것은 특정 기능의 습득에 그치지 않고, 각 영역에 대한 성향, 책임감, 자기평가 전략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4개의 요소 즉 기능, 성향, 책임감, 자기평가 전략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능, 성향, 책임감, 자기평가 전략 등 4개의 요소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며,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년별 학습 목표와 실천 사례를 추가로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1. 기능

기능(skills)이란 조직화된 행동 형태로서 어떤 일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탐구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탐구과제를 설정하는 기능, 필요한 자료를 탐색하는 기능,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석을 생성하는 기능, 적절한 의사결정과 결론을 도출하는 기능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기능은 어떤 대상이나 주제에 대해 교육하거나 학습하고자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다. 보통 기능이라 하면, 타이핑이나 수영, 공구 다루기 등 물리적이고, 기술적 능력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책을 읽을 때 문단나누기, 내용 분류하기, 추론하기와 같이 정신적인 기술이나 능력도 기능에 포함된다.[9)]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4대 기준 마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이 제시되어 있으며, 〈표 3〉은 기준 1과 관련된 기능의 사례를 열거한 것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준 1에 해당하는 기능에는 1.1.1부터 1.1.9까지 9개가 있으나 그 중에서 1.1.5에 해당하는 기능만을 제시한 것이다. 1.1.5에 해당하는 기능 아래에는 학년별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에 관계없이 21세기 학습자라면 누구나 1.1.5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학생들 간의 지적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지적 수준에 따라서 배치한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계열성의 개념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열은 교육내용을 언제, 어떤 순서로 제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계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먼저 배우며, 어떤 내용을 나중에 배우는가? 한 교과를 한 학기, 한

9) 이병기, 정보활용교육론(경기 : 조은글터, 2006), p.21.

학년 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속해서 배운다면, 어떤 단원이나 주제를 어떤 시기(학교 급별, 학년, 학기, 월, 주, 일, 차시)에 배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10]

〈표 3〉 기준에 제시된 기능의 사례

기준 1 :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하며, 지식을 습득한다.	
기능 지표 1.1.5 : 정확성, 효용성, 정보요구에 대한 적합성, 중요성, 사회 문화적 맥락성 등을 바탕으로 정보 자료의 내용을 분석, 평가할 수 있다.	
학년별 학습 목표	
2 학년	• 특정 문제의 해답에 적합한 사실의 확인 및 활용 • 그림, 삽화 및 차트에 포함된 정보의 해석
5 학년	• 연련 및 능력에 따른 정보자료의 스킴 및 스캔 • 핵심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세부 사항 확인 • 정확성에 근거한 사실의 평가 • 사실과 의견의 구분 • 지도, 그래프, 차트 및 각종 시각자료에 포함된 정보의 해석 • 과제해결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의 선택
8 학년	• 최신성, 정확성, 권위, 관점 등 사회·문화적 맥락(상황) 등에 의한 정보의 차이 인식 • 유용성, 최신성, 정확성, 권위, 관점에 따른 정보 평가 및 선택
10 학년	• 학문 분야에 따라서 지식의 구조, 정보의 표현 및 활용,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 • 최신성, 정확성, 권위, 관점 등 사회·문화적 맥락(상황) 등에 의한 정보의 평가
12 학년	• 해석의 효용성을 위한 역사적 정보 평가, 정확성 및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한 과학적 정보 평가 • 정보의 창출 및 해석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문화적 맥락(상황)의 인식 • 다른 정보원과의 모순성이나 검증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할 기준의 활용

2. 성향

어떤 대상이나 주제에 대해 가르치거나 학습할 때 해당 영역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알고 있다고 해서 완전하게 교수-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학습의 요소에는 지식이나 기능과 같은 인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태도, 흥미, 자아개념, 동기와 같은 정의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습의 요소를 성향(dispositions)이라 하며 습관, 태도 혹은 학습 행동 등 정의적 특성은 감정이나 정서와 관련되어 있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은 지식이나 기능의 획득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정의적 특성을 다루는 성향 교육을 소홀히 다룬 경향이 있었으나 1980년 이후에는 정의적 특성이 교육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11]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4대 기준에는 태도의 변화 즉, 성향을 강조하고 있는 현대 교육의 이념을 반영하여 각 영역별로 성향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4〉는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10) *Ibid.*, p.72.

11)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 대백과사전(서울 : 하우동설, 1998), p.2328.

기준」에 명시된 성향 지표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기준 1에 대한 성향 지표 중에서 1.2.1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대한 사례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사례 행동은 특정 기준이나 특정 학년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능과는 달리 학년별 학습목표로 제시하지 않고, 그 특성만을 열거하고 있다. 이 리스트에는 성향의 발달 단계를 아울러 제시하였다. 발달 단계는 각 연령별로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성향을 교사가 통제 하는 단계에서 학생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이 리스트에 제시한 것이 모든 성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학생들이 학습하는 동안에 교사가 성향을 지도하고, 성향 자체를 평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다.[12]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4대 기준별로 제시된 기능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 ~한다.'의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성향 지표는 '~한 태도를 갖는다, ~의 마음을 견지한다.' 등으로 기술함으로써 성향 지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기준에 제시된 성향의 사례

기준 1 :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하며, 지식을 습득한다.	
성향 지표 1.2.1 : 단편적인 사실의 수집에 그치지 않고 연구 문제와 해결 방안을 탐구함으로써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다.	
사례 행동	
•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는 연구 과제를 설정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 과제를 설정하는 태도를 갖는다. • 무엇을 어떻게 알고자 하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 과제를 설정하는 태도를 갖는다. • 아이디어와 사건을 연계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설정하는 태도를 갖는다. • 도전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연구 과제를 설정하는 마음 자세를 견지한다.	
발달 단계	
1단계	사실적 정보를 다루는 탐구 수준의 자세를 갖는다.
2단계	교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적 수준의 정보와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탐구 수준의 자세를 갖는다.
3단계	교사의 도움을 최소화하여 사실적 수준의 정보와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탐구 수준의 자세를 갖는다.

3. 책임감

책임감(responsibilities)은 각 개개인이 자기가 한 일이나 산출물에 대해 기꺼이 책임지고, 입증되거나 알게 된 과오를 수정할 수 있는 자세나 정도를 말하며,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의 효과나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기 보다는 그렇게 된 이유를 밝히고 설명하려는데 역점을 둔다.[13]

21세기는 자율적이면서도 사회적인 학습,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학습을 강조한다. 21세기의 바람직한 학습자는 지식이나 기능, 태도의 습득 이외에 정보자료를 적극적으로 탐구하여 지식 의

12) AASL,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in Action, op. cit.*, pp.40-41.
13)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 용어사전(서울 : 하우동설, 2007), p.683.

이해와 적용, 결론 도출은 물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데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14]

이러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에서는 〈표 5〉와 같이 책임감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5〉 기준에 제시된 책임감의 사례

기준 3 :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식을 공유하고, 윤리적 생산적으로 사회에 참여한다.	
책임감 지표 3.3.1 : 정보탐색, 다른 사람과의 상호협력, 공동체 참여시에 다양한 관점을 지향하고, 존중한다.	
사례 행동	
•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견해를 존중한다. • 대화 혹은 토론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수용한다. •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한다.	
발달 단계	
1단계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단계
2단계	다른 사람의 견해나 주장을 듣고, 자신의 주장을 수정·보완하는 단계
3단계	다른 사람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지식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분위기를 창출하는 단계

〈표 5〉는 4대 기준별로 제시된 책임감 지표 중에서 기준3의 3.3.1에 해당하는 요소를 사례로 든 것이다. 책임감 지표는 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자료의 존중 의식, 집단 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 수행이나 적극적인 참여 의식, 법적·윤리적인 정보 활용 등의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책임감 지표는 특정 주제나 학년에 해당하기 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통제하는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학년별 학습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사례 행동과 발달 단계의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사례 행동은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책임 영역을 열거한 것이며, 발달 단계는 연령별로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학생들의 책임감을 교사의 통제에서 점차 학생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4. 자기평가 전략

자기 평가 전략(self-assesment strategies)은 아이디어의 가치나 논리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과 자기 자신의 사고과정의 효율성 및 적절성을 판정하기 위한 준거를 설정하고, 확인, 검증하는 능력을 말한다.[15] 21세기의 학습을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정보로부터 의미를 파악하고, 개인적 흥미는 물론 교과학습 영역에서 정보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을 되돌아 볼 수 있는

14) AASL,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in Action, op. cit.*, pp.48-49.
15) 허경철, "사고력 교육을 위한 기초", 사고력 교육의 이론과 실제(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1993), p.21.

능력이 필요하다. '무엇을' 학습하고, '어떻게' 학습하느냐의 문제는 오늘날의 글로벌 사회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요소를 자기평가라 하며, 이는 자율적인 학습에 있어서 핵심적인 영역이다.[16] 〈표 6〉은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4대 기준별로 제시된 자기평가 전략의 지표를 정리한 것이다.

〈표 6〉과 같이 4대 기준별로 자기평가 전략에 해당하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이러한 지표를 이해하고 있다하여 자기평가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에서는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학생들이 자기평가 전략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도와주기 전략으로서 반성일지(reflection logs), 과정 폴리오(process folios), 반성적 노트 작성(reflective note taking), 평가도구(rubric) 및 체크리스트, 학생 동료 간 질문 및 협의, 스스로 질문하기(자문) 등을 들고 있다.

〈표 6〉 기준에 제시된 자기평가 전략의 사례

기준 [1] :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하며, 지식을 습득한다.	
1.4	자기 평가 전략
1.4.1	효과와 과정의 관점에서 정보탐구 자체에 대해 점검한다.
1.4.2	자신의 탐구과정에 대해서 교사 및 동료 학생과 상호작용하고, 피드백을 받는다.
1.4.3	수집한 정보를 모니터하고, 약점 혹은 정보요구와의 차이를 점검한다.
1.4.4	필요한 시점에서 도움을 요청한다.
기준 [2] : 결론 도출 및 의사결정, 새로운 상황에서의 지식 적용 및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	
2.4	자기 평가 전략
2.4.1	정보에 대해 어떤 자세(수용, 거부, 수정 등)를 취할 것인가를 판단한다.
2.4.2	정보활용과정을 되돌아보고, 탐구과정의 완전성에 대해 평가한다.
2.4.3	새로운 지식과 새롭게 이해한 부분을 확인한다.
2.4.4	향후의 탐구 방향을 설정한다.
기준 [3] :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식을 공유하고, 윤리적 생산적으로 사회에 참여한다.	
3.4	자기 평가 전략
3.4.1	전략 수정이나 미래의 효과적인 방법 모색을 위해서 학습 과정을 평가한다.
3.4.2	학습 결과물의 질적 수준과 효과를 평가한다.
3.4.3	집단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 리더십, 다양한 관점의 존중 태도 등에 관해 평가한다.
기준 [4] : 개인적, 심미적 성장을 추구한다.	
4.4	자기 평가 전략
4.4.1	자신의 관심 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
4.4.2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은 한정적이고, 제한적임을 인식한다.
4.4.3	자신의 학습에 있어서 어떤 노력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인식한다.
4.4.4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정보를 해석한다.
4.4.5	자신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개발한다.
4.4.6	자신의 요구와 관심사에 적합한 정보자료를 선택하는 능력 자체를 평가할 수 있다.

16) AASL,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in Action, op. cit.*, pp.57-59.

5. 실천 사례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때 가능한 일이다.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에 의하면,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에 제시된 기준과 요소(기능, 성향, 책임감, 자기평가 전략) 지표를 학교 현장에 접목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서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교과 교육과정의 맥락 속에서 협력 수업의 형태로 지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에서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실천 사례 12개를 제시하고 있다. 12개의 실천 사례는 흔히 말하는 학습 지도안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 및 요소(기능, 성향, 책임감, 자기평가 전략)는 물론 교과의 연계 단원, 도서관 상황, 협력 수준 등이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 8〉은 초등학교 3학년 '정치·기술' 교과와 관련된 적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표 7〉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 사례 개요[17]

학년	기능	성향	책임감	자기평가	교과영역	교과주제	도서관 상황	협력수준
K	1.1.2	3.3.5	2.3.1	2.4.3	언어/보건/사회	공동체 도우미	탄력적 시간표/단원별 1차시 수업	중간
1	3.1.1 3.1.3 3.1.4	2.2.4	1.3.4	1.4.2	과학	곤충 탐구	탄력적 시간표/단원별 수 차시 수업	중간
2	1.1.1 1.1.3 1.1.4 1.1.6	1.2.1 1.2.3 1.2.5 1.2.6	1.3.3 1.3.5	1.4.2 1.4.4 2.4.1 2.4.3	역사	아프리카-아메리카 역사	탄력적 시간표/단원별 수 차시 수업	강함
3	1.1.6	2.2.4	NA	1.4.4	정치·기술	정부 조직	혼합/단독 강의	제한
4	2.1.6	2.2.4	1.3.5	3.4.2	과학/기술	푸드 웹의 구성	고정식 시간표/단독 수업	없음
5	1.1.3	1.2.1	NA	2.4.2 3.4.2	보건	편의 식품의 영양	고정식 시간표/단원별 1차시 수업	강함
6	3.1.5	2.2.4	2.3.1	4.4.5	과학	에너지와 환경	탄력적 시간표/단원별 수 차시 수업	강함
7	1.1.4 1.1.5	1.2.1 1.2.4	1.3.3	1.4.1 1.4.3	사회/언어/기술	지역사회 역사	탄력적 시간표/단원별 수 차시 수업	강함
8	3.1.4 3.1.6	2.2.4 3.2.1	3.3.5 3.3.7	1.4.1 3.4.2	과학/수학/언어	지구 온난화	혼합/단원별 수 차시 수업	중간
9	4.1.7	4.2.1 4.2.2	34.3.1 4.3.4	1.4.2 1.4.4 4.4.1	영어/기술	선호하는 저자	개별화 수업	없음
10	2.1.4	2.2.3	3.3.4	1.4.3	수학	데이터베이스 비교	탄력적 시간표/단독	제한
11-12	4.1.3	3.2.3	3.3.7	2.4.2	영어/언어	문화와 민속의 관계	탄력적 시간표/단원별 수 차시 수업	강함

17) AASL,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in Action, op. cit.*, p.63.

〈표 8〉「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 사례

대상 : 초등학교 3학년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
〈도서관 상황〉 ☐ 고정식 스케줄 ☐ 탄력적 스케줄 ☑ 혼합형 스케줄 ☐ 개별화 수업 ☐ 독자적 수업 ☐ 단원별 1차시 수업 ☐ 단원별 수 차시 수업 〈협력 수준〉 ☐ 없음 ☑ 제한적 ☐ 보통 ☐ 강함 〈교과 단원〉 미국 정부조직 〈소요 시간〉 약 30분	기준 1 :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하며, 지식을 습득한다. 〈기능 지표〉 1.1.6 추론 및 의미 해석을 위해서 다양한 형식(텍스트, 시각자료, 미디어, 디지털 등)의 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다. 〈3학년 학습목표〉 • 다양한 노트작성 전략(개요작성, 질문형성, 강조, 그래픽조직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 내용을 재 진술 혹은 요약할 수 있다. 〈성향 지표〉 2.2.4 학습 결과물을 완성함으로써 생산적 태도를 갖는다. 〈자기평가 전략 지표〉 1.4.4 적절한 시점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시나리오〉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은 사서교사에게 "미국 정부 조직"이라는 단원 지도 계획에 대해 알려 왔다. 담임교사들은 주당 1시간씩 할당된 도서관활용수업 시간에 사서교사가 "미국 정보조직"에 대한 비디오 자료를 열람시켜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사서교사는 'schoolhouse rock song and video'라는 사운드, 비디오 자료를 열람시키면서 학습지(그래픽조직자)를 작성하도록 하고, 시청과 청취 전략에 대해 지도한다. 덧붙여서 사서교사는 단원과 관련된 여타의 자료를 소개한다. 담임교사들은 교실에서 단원에 대한 수업을 전개하고, 과제를 부여한다. 과제해결을 위해 학교도서관을 방문한 학생들에게 각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 3학년 사회과 : 정부조직의 구조와 역할을 기술할 수 있다.
• 3학년 국어과 : 차트, 그래프, 그림 등으로 정보내용을 조직화할 수 있다.

〈최종 결과물〉
• 미국 정부 조직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그래픽조직자 완성

〈도서관활용수업〉
학생들이 영상자료에 대한 올바른 시청 및 청취 전략을 이해하고, 그래픽조직자로 정보내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방법〉
• 사서교사는 평가 기준에 의거 그래픽조직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 사서교사는 학생들이 그래픽조직자를 작성하는 과정을 관찰, 기록한다.

〈수업 자료〉
• 비도서 자료, 사운드 자료에 나오는 노래 가사 유인물

〈교수-학습 방법〉
• 직접 교수 : 올바른 시청 및 청취 방법 교수
• 모델링·안내 수업 : 노래 가사 시트를 배부하고, 사운드 자료 열람, '정부 조직에 관한 단어가 나오면 시트의 해당 단어에 동그라미 표시하도록 안내
• 자율학습 : 학생들 스스로 그래픽조직자 작성
• 지식 공유 및 반성 : 학생들이 작성한 그래픽조직자를 상호 비교하여 수정·보완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천 사례에 제시된 학습지도안을 보면,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 도서관 상황, 협력 수준, 관련 교과와 단원, 수업 소요 시간, 수업 전개 시나리오, 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최종 결과물, 평가 방법, 수업 자료 등 도서관활용수업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그 중 도서관 상황을 보면 특정 학급이 특정 시간에 학교도서관을 점유하는 고정식 스케줄과 수업시간 전·후, 방과 후 등 언제든지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스케줄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해당 학습지도안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겸한 혼합형 스케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협력 수준을 보면 사서교사의 단독수업에서부터 매우 강한 협력 체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해당 학습 지도안에서는 제한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여기서 제한적인 형태는 사서교사가 단독으로 학교도서관에서 수업을 전개하되, 교과교사의 요청에 의거 교과와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을 전개하는 형태를 말한다. 사서교사가 수업을 전개하는 방식을 보면 단순히 비디오 혹은 사운드 자료를 열람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올바른 시청이나 청취 등 자료의 활용과 정보 내용의 이해와 해석에 도움이 되는 수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서교사의 교수-학습 방법을 보면 직접 교수는 물론, 모델링·안내 수업, 자율학습, 지식 공유 및 반성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학교도서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설, 자료, 직원 등 인프라에 관한 사항을 법적, 제도적으로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과 학교도서관을 어떻게 접목하여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기본 이념과 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교육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학교 교육은 사회적 제도로서 사회의 요구와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와 변화를 적시에 수용하고, 반영할 때 바람직한 교육을 전개할 수 있고, 교육 제도 내의 학교도서관 정책 또한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2003년부터 1, 2차에 걸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기본 인프라 구축에 매달려 있고, 학교도서관이 갖는 교육적 역할을 교육 현장에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학교도서관 기준이나 지침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1920년에 최초의 학교도서관 기준을 제정한 이후 정보 기술 및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약 10여년을 주기로 개정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새로운 학교도서관 기준으로서 「학습자 힘 기르기」를 제정하였다. 미국의 새로운 학교도서관 기준은 형태상으로 단독으로 출판되었으나 2007년과 2009년에 각각 발행된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과 해설서 성격을 갖는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7년에 제정된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의 핵심 관련 문서인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과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학교도서관계의 국제적인 성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기준 제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삼고자 한다.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 관련 문서의 구조와 내용 분석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은 미국 교육학회(NEA)의 주도로 1920년에 처음으로 제정한 이후 교육 및 기술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약 10여 차례에 걸쳐 개정해 왔으며, 가장 최근의 기준으로는 2009년에 AASL에서 발행한 「학습자 힘 기르기」가 있다.

둘째, 2009년판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 「학습자 힘 기르기」는 1998년 기준 「Information Power」의 폐기나 대체가 아니라 확대·개편한 것이며, 단독 문서가 아니라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과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을 바탕으로 한다.

셋째,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은 별도의 해설이나 부연설명 없이 학교도서관의 9대 교육적 신념, 4대 기준, 4대 기준별 요소 구분(기능, 성향, 책임감, 자기평가 전략), 지표 등을 항목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9대 교육적 신념은 독서와 탐구에 의한 학습, 구성주의에 의한 교수-학습의 원리를 담고 있으며, 이는 학교도서관이 갖는 교육적 이념과 철학을 대변하고 있다. 4대 기준에는 21세기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 능력으로서 탐구를 통한 지식 습득, 새로운 지식 창출, 윤리적 정보 활용 및 사회적 기여, 개인적 성장을 들고 있으며, 이는 학교도서관을 통해서 사서교사가 길러야 할 학생상(學生像)을 제시한 것이다. 4대 요소(기능, 성향, 책임감, 자기평가 전략)는 4대 기준을 신장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건으로서 기능과 동시에 성향, 책임감, 자기평가 능력을 길러주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4대 기준별 지표는 학생들이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 교수-학습 목표에 해당한다.

넷째,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해설서 성격을 갖는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은 4대 기준, 요소, 지표 외에 학년별 학습 목표와 실천 사례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학년별 학습 목표는 초·중등학교(K-12) 중에서 2, 5, 8, 10, 12학년으로 구분하여 각 학년에서 성취해야 할 4대 기준의 학습 목표를 제시한 것이며, 실천 사례는 실제 수업 상황을 모델로 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실천 사례에 포함된 12개의 학습지도안에는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에 의한 학습 목표, 도서관 상황, 협력 수준, 관련 교과와 단원, 수업 소요 시간, 수업 전개 시나리오, 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최종 결과물, 평가 방법, 수업 자료 등 도서관활용수업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 역시 초창기에는 주로 시설, 자료, 직원 등 인프라에 관한 지침이나 기준을 양적으로 제시하는데 그쳤으나 1969년 기준부터는 학교도서관의 관점이 아니라 교육의 관점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은 이러한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과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은 미국의 학교도서관 전문단체

에서 제정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혹은 학습능력 기준인지 학교도서관 관련 기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교육의 이념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전과는 달리 교육 당국은 물론 사회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도서관이 갖는 교육적 잠재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차제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을 벤치마킹하여 교육의 관점에서 학교도서관을 바라보고,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의 이념 구현과 교수-학습의 원리로서 작동할 수 있는 기준 제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